

원양어업의 전망(II)

통영수산전문대학 어업과
전임강사 김 용 해

— 목 차 —

- 1. 개 요
- 2. 원양어업의 현황과 전망
 - 1) 원양어선
 - 2) 원양 승선원
 - 3) 원양어업의 생산량
- 3. 2천년을 향한 원양어업
 - 1) 원양어업의 구조 개선
 - 2) 원양어업의 기술 향상

3. 2천년을 향한 원양어업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와 생산고 등의 상대적 비중이 2천년에는 현재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며 경제전체의 효율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여 복지농어촌 건설을 위한 운동과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1차 산업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수한 여건에서의 희소가치 산업으로 평가되는 어업분야는 아직도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로 생선에서는 비린내라기 보다는 생선 특유와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이 어업자체의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어업

종사자는 2천년대를 향해 열심히 진군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사고 방식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원양어업의 구조 개선

2천년대에 선진사회로 부상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고도산업 및 정보화 사회” 등으로 특징되면서, 연평균 7% 정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1인당 GNP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윤택한 기본 생활과 여가 생활을 누리려는 사회 풍조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원양어업이 표류하지 않고 확고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열거하고 교육적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원양어업에 평생을 바쳐 일하겠다는 유능한 젊은이가 날로 줄어드는 것은 육상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바다에서의 고독한 작업에 대한 보수가 현재에 와서 보면 육상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고, 어선에 승선한다는 것이 반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도 되지 못하고 있다. 육상에서의 가정생활, 자녀교육, 휴일과 휴가 등을 모두 포기하면서 받는 보수가 육상의 2배 이상은 되어야, 복리가 증진되면서 고생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일반상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가제도와 상여금 지급 등을 하

투바삐 원양업계에서도 실시하며, 선내 거주시설의 개선과 근무시간의 단축, 여가활용 등으로 복지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둘째, 단백질 식량자원의 공급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원양어업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총예산 중에서 수산업 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은, 국민 총생산 중에서 수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원양어업에 들어가는 순수 예산은 그야말로 미미한 정도이다. 아울러 농어민 후계자와 같이 원양어업 종사자에게도 확대시켜 유능한 인력의 공급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어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실무위주의 내실있는 평생교육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원양어선에 승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인력공급이 부족되는 사태는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어업의 현대화와 자동기계화로 인력의 과잉공급과 실업이 우려되나, 연근해 어업과 어선 어업분야의 육상 근무 등으로 흡수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계 각급 학교의 학생정원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것은 현재의 학교 교육의 질적인 수준으로 볼 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사자격증과 해기면허를 취득한 정상급의 우수한 졸업생의 비율이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유추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선 어구의 현대화에 따른 첨단 기계기구 등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소수 정예 부대의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교육열에 부응해서 고급의 실험실습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전쟁 시대에 연안각국의 어업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고급 인력의 배양으로, 어업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도 2천년대의 어업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육상에서는 원양어업을 지원하고 있는 회사원과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이 강화되어 어업에 대한 통계와 자료의 분석에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경영이나 정책 결정에 참고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어장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세계 어장의 대부분은 이미 바닥이 드러나서, 새로

운 어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어장 조사와 함께 외교적인 협력사항으로 간주되어진다.

아직도 어업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속적 어획량이 5천만톤 이상인 남빙양의 크릴어장이나 심해 어장으로서의 진출은 국내의약·소비성향과·가공제품의 개발 및 어업 경영 수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어로니 쿼터니 하는 문제가 없는 대양상에서의 자원개발과 어구어법의 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세계 각국의 어장마다 각각 한 척씩의 어선이 뚫고 들어가서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다변화와 어구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어선어업은 원래의 어구 자재와 어로작업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어구와 어선 및 어로 장비는 서로가 기능상 일치되어야 최고의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저에너지 소비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유류파동 이후 선진국에서는 단위 생산당 에너지 소비율을 유류파동 이전보다 20~30% 정도 감소시켜 왔으나, 우리나라는 유류파동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같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의 저유가 기간을 원양어업의 구조를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 있는 호기로 삼아, 어구 어법의 자동 기계화와 저에너지 소비형 어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의 기반을 얼마나 확고히 다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원양어업의 생존여부를 가름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아진다.

2) 원양어업의 기술 향상

2천년대의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원양어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원양어업의 어로작업과 판매 등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양어장과 자원관계, 어획에 관한 정보 및 어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하는 것이 보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어선별로는 적정 조업규모와 해역, 입어료, 쿼터 배정량, 유가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

자원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북양트러어선에서 외국 옵서버에 의한 개체량 파악과 같은 업무를 각 어선 자체에서 측정, 자료를 얻어내고, 이 자료를 해역별로 취합하고 분석하여 차후 어업 외교시 인정받는 참고자료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과 어획량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실적 증명이 아니되어 쿼터 배정량에 손해를 보고 하는 수 없이 등정을 바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어장을 개척할 때도 정확한 정보를 조업 상대국에 제공하는 것은 공동이익을 취한다는 견지에서 외교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라는 체면을 유지시키는 물론 씨고기까지 쓸어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방패이기도 할 것이다.

원양어업 정보시스템은 지금까지의 원양어업 전반에 걸친 조경과 회사별 관리의 역할을 맡아왔던 민간 단체에서도 충분히 대행할 수 있을 것이다. 원양어업에 관한 여러가지 통계자료와 정보수집의 창구를 외국에 까지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다시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도록 체계를 잡으면 그리 어려울 것은 없다고 본다. 물론 어업정보의 처리에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1인당 어획량 100톤 이상의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문제이다. 어업에 관계되는 어선, 어구 및 어업기기는 관련 산업이 매우 다양하고, 이 관련 산업이 동시에 기술의 향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나, 점차 어업분야의 관련부품이 국산화 됨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업고유의 분야인 어구어법과 어획물 처리 공정에 관해서는 기술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급두뇌의 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2천년대의 자동기계화 시대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어업기술의 향상은 거의 대부분 외국의 것에 의존하였으나 앞으로 국제적인 물적,

지적 소유권이 확대 실시되면 원양어업에 의한 총수출액 이상의 달러를 날려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업 분야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산학협동체계를 새로이 구축함은 물론 전문연구부서가 편성된 수산진흥원의 연구개발기능을 더욱 고조시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자동기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향상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실무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의해서도 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실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어로 작업과 어획물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T. Q. C(본업조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작업과정이나 처리과정을 간단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전체적인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양명태 어업에서 명란을 따는 기계는 한 선원의 묘안으로 개발된 것인데 무려 선원 4명 이상의 능률을 올린다고 한다.

기술의 향상은 하루 아침에 강제적으로 시킨다고 해서 금달걀 낳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고방식의 유도과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승선원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의 과다로 취미 생활은 불구하고 수면시간마저 부족한 상태이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T. Q. C를 시킨다고 해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선상생활에 있어서 승선원 복지 증진이 시급한 선결문제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농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81~1985.
- 2) 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통계, 1981~1984.
- 3) 한국기계연구소, 연근해어선근대화에 관한 연구(세미나 자료), 1981.
- 4) 한국개발연구원,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1985.
- 5) 농수산부, 어가 경제조사 결과보고, 1981~1985.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방양 어장진출의 합리적 추진방안, 1985.
-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관한 연구, 1982.